

도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품 전시회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 ·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 24일까지 전주공예품 전시관서 개최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북 지역의 전통문화와 고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정우)와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회장 박춘열)가 손을 맞잡고 도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품 전시회'를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 전시관 1·2관에서 개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분야의 고미술품과 전통문화예술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우리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고유한 유물들이 다수 전시되며,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며, (사)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이정우 (사)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장은 "지역민과 함께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와 사단법인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가 손을 맞잡고 도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품 전시회'를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 전시관 1·2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춘열 (사)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 회장도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고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와 고미술을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문화가 보존되는데 기여하는 길은 많은 도민의 참여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엄수현 개인전 'HAPPY HAPPY LAND'

전주문화재단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 두 번째 주자... 25일~9월 4일 개최

우리 지역 시각예술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가 두 번째 문을 연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문거리에 위치한 '공유화음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주간 이어지며, 젊은 화화작가 엄수현의 개인전 'HAPPY HAPPY LAND'로 관람객을 만난다.

21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각기)에 따르면 엄수현 작가는 환경문제를 자신만의 화풍

으로 재치 있게 풀어내며 주목받고 있는 신예로, 이번 전시에서는 사라져 간 존재와 사라져 갈 존재에 대한 시선을 담았다. 작품 속 생명들은 동화처럼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자 잘려나가는 나무들이다. 작가는 이들에게 눈과 코, 입을 그려 넣어 생명력을 불어넣고, 끊임없는 파괴 속에서도 치유와 공존의 가능성을 희망한다.

이번 전시는 내달 4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내 메모장에 소감을 남긴 관람객에게는 '동문그림가게' 참여작가 9인의 대표작품 엽서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원, '전주인 창암 이삼만의 서예 세계' 학술 세미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알려진 창암 이삼만(1770~1847)서예가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문화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전주인 창암 이삼만의 서예 세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창암의 출생과 신분, 서예적 경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조발표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창암의 신분과 저술한 서예 연

원에 비취본 창암 서예의 의의'를 주제로, 창암의 서결 속 서론과 제자들에게 직접 써준 서론을 분석하며 창암 서예의 독창성과 조선진체의 완성자로서의 위상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1주제 발표는 박철상 한국문화연구원 소장이 '창암 이삼만의 가계와 강재 시절의 활동'을 주제로 진행한다. 박 소장은 그동안 논란이 있던 창암의 출생지를 전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창암이 호를 사용하기 전 '강재' 시절의 활동과 당시 경기전 별감 한

익상이 기록한 '강옹설'을 분석하며 창암 초기 활동을 조명한다.

제2주제 발표는 김진돈 전북문화유산위원이 '창암 이삼만 서예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맡는다. 김 위원은 창암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집터 유적과 서첩, 병풍,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서예사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분석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문현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과 서흥식 한국서도협회 전북지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북 도민과 서예 동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3)

강동식..... 씨죠?

- 오 상 근 -

"동해원요? 고창읍 신월리라고 하세요?" 마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암마을 이름은 원래부텸 여그서 썼는데, 거그서도 호암마을이라고 부르다드만."

마을로 들어오기 전 봤던 직사각형 바위가 궁금했다. "여기 마을로 들어오다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바위예요?"

"병바우라고 허지 병처럼 생겼다고 허서 병바우라고 허. 옛날에 신산들이 잔치를 허다가 술에 취해서 소반을 었어버렸는디 소반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이 었어져 버렸드라. 그 었어진 것이 병 같이 생겼다고 허서 병바우라고 허지. 여그 마을 이름인 호암에서 호 자가 병 호라고 허드만. 병 호자에 바위 앞자를 써서 호암마을이라고 그런디야."

"아따, 여편네 많이도 아네, 허허허." 뚱뚱한 노인이 싱거운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아가 말하쥘던 신월리에 있는 호암마을은 예 호암마을이라고 불려요?"

"아매, 그 호 자가 호랭이 호 자 일걸. 호랭이 바위가 마을 뒤에 었을게 호랭이 호자를 써서 호암마을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 같은디."

동식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회관을 나와 차를 몰아 신월리 호암마을로 달려갔다. 고창읍에서 북서쪽으로 4킬로미터 부근에 었었는데 우측에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휴게소와 좌측에 운곡저수지가 자리하고 었었고 남서쪽으로는 고인돌유적지가 위치해 었었다.

동식은 차를 달려가면서도 고창 이 작은 동네에 여기저기 볼 곳이 많구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고창에 살았지만 워낙 미친게 같은 인생을 살다보니 한가롭게 유람하고 다닐 시간이 었었다.

주로 고창읍내와 서울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비즈니스를 하느라 바빴고 서른다섯 해 반절은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낸 탓이다.

호암마을에 도착하자 굴삭기의 엔진 소리가 났고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낚은 나무기둥 조각이나 쓰레기 같은 부속물들을 나르느 게 보였다. 낚은 집과 창고 같은 곳을 철거 중인 모양이다.



백색 나이기 추리닝에 같은 색의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은 동식의 복장은 철거작업 현장에 전혀 어울리지 었었다.

작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 아니겠는가. 봉사만 하면 된다. 옷과 신발에 흙을 묻힐 일이 었다.

동식은 차에서 내려 느릿느릿 팔자걸음으로 현장으로 다가갔다. 작업을 하던 자들이 힐끔힐끔 동식을 쳐다봤다. 옷차림에서 대번에 나는 조폭이요, 광고를 하는 테라 다들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눈으로 동식을 쳐다봤지만 대놓고 아니꼬운 눈은 하지 었었다.

개중에 아니꼬운 눈을 한 이가 었었는데, 그는 잠시 동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동식은 그런 자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일종의 직업병인데 조직 선배들 말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눈싸움에서 진 일이 없으니 눈에 쌍갑을 달고 추서버릴 것처럼 노려보는 것은 동식의 습관이다.

그는 동식의 쌍갑 눈을 피했고 힘이 들어갔던 눈에서 일른 파위를 풀며 다가왔다. 보호관찰소 직원인 모양이다.

"강동식..... 씨죠?"

어투에서 그가 동식을 어려워하고 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었었다. 동식은 대답 없이 눈에서 힘을 풀고 그를 쳐다봤다.

그는 슬쩍 위아래로 동식의 복장을 살쥔지만 옷차림을 품평하지는 었었다. 그도 동식이 고창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건달이라는 걸 알고 었고 여기까지 왕립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었을 것이다.

동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분란을 일으키는 불사사만 일으키지 말고 그 저 얄전히 었어주길 바라는 마음 뿐 땀 흘려가며 진짜로 막노동 봉사활동에 충실하게 일할 것을 바라지는 았을 것이다.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왔어도 역시 아무런 토를 달지 았았을 것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